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A Study on th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perceived by dual career housewife
and household task performanc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강사 이 미 선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ung Woo Lee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 : Mi Sun Lee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ives' demographic variables,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perceived by dual-career wives on household task performance.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391 employed professional wives working in Seoul. Using the questionnaire, the data was obtained and the data was analysed by percentile, frequency, ANOVA,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scores showed a little higher than those of previous research. Number of children,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family patter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family cohesion,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patter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the family adaptability.

2) The division of housework by family members was influenced by the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pattern. The family cohesion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by husband. The standard of housework was influenced by wives' age, the family cohesion and a housework tim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 중의 하나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출현이다. 남편, 부인 모두 가정밖의 직업을 갖는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주부에 의해 행해졌던 가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남편, 부인 모두 가정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변화된 가족형태는 과거의 역할분담과 의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은 Adams가 말한 전통주의와 신전통주의가 혼재해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어 부부의 역할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갈등적이다(배희분, 1991 : 9).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이 주부의 일과 책임으로 간주되어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적합한 역할공유 및 가사노동분담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취업주부는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주부 자신의 자원 및 가정자원을 적절히 관리하여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업주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가사노동수행방안은 개인적, 가족적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몇몇 국내외의 연구들이 취업주부의 역할 과중 및 갈등에서 오는 시간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관리전략, 가사노동수행방안(조성은, 1991 : 이승미, 1989 : 이정숙, 1994 : Strober와 Wienberg, 1980), 갈등대체 방안(임혜경, 1993) 및 가정내 역할분담(Marshall, 1990)에 관해 연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관된 개인, 가족관련변수 및 기타변인과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취업주부가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이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최초의 상황 혹은 조건에서

시작한 두개인 혹은 가족이 상이한 변환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조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동일결과성(equifinality)의 개념을(Deacon과 Firebaugh, 1988 : 17) 기초로 하여 각기 다른 자원을 소유하며, 각기 다른 정도의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는 취업주부가 어떤 가사노동수행방안을 사용하여 자신의 역할긴장 및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가사노동관리만족도 및 생활의 질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원의 개인적 자원, 가족 자원, 사회지지, 적응유형 등의 요인이 가족,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를 감소시키거나,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Lavee, 1985 : 25)는 관점에서 취업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가족자원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자원들이 이중역할수행에서 오는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내 가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가족의 응집력은 개인이 가족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 가족적응력은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어느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 일어날 수 있는 긴장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 및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주요 변수를 줄이고 가족유형모형을 발달시키기위해 Olson 등은 가족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한 50개의 개념들을 종합, 분석하여 이 모두를 함축성 있게 대표해 줄 수 있는 개념이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및 의사소통임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순환모형을 제안했다. 순환모형에서 가족의 응집력과 가족의 기능과의 관계는 곡선적이라고 가정된다. 즉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거나(밀착가족 :

enmeshed family), 지나치게 낮은(과잉분리가족 : disengaged family) 가족의 경우는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며, 응집력이 적당히 높거나(연결된가족 : connected family), 적당히 낮은(분리된가족 : separated family)가족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개인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가족적응력도 응집력과 마찬가지로 가족기능과 곡선적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된다. 즉 가족의 적응력이 적당히 낮거나(구조적 : structured), 적당히 높은(융통성 : flexible) 가족은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적응력이 매우 낮거나(경직 : rigid), 매우 높은(혼동 : chaotic)가족은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유순덕, 1987, 7~14). 순환모델에서 도식화 되는 가족유형과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의 문제점 및 직선적 가설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각각 4수준으로 분류하여 상호 연결시키면 16개의 가족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이런 16개의 가족유형은 다시 세가지 가족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유형은 '균형을 이루는 가족(balances family)'으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의 두 차원에서 모두 중간에 위치하는 가족이며, 두번째 유형은 '중간범위의 가족(mid-range family)'으로 두가지 차원중 한차원은 중간에, 다른 한차원은 극단에 위치하는 가족이다. 마지막 유형은 '극단수준의 가족(extreme family)'으로 두차원이 모두 양극단에 위치하는 가족이다(유순덕, 1987, 16). 곡선적 가정에 따르면 역기능적인 가족은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라기 보다는 극단적 가족이 된다. 곡선적 가정은 광범위한 임상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다수의 연구와 정상가족과 임상가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Lavee는 순환모델에서의 곡선적 가설을 지지하는데에는 두가지 예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가족체계에 관한 문화적, 윤리적 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극단에 속하는 가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가족기능과 가족응집력, 적응력과의 관계가 곡선적이기 보다는 직선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avee, 1985 : 13~16). 즉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가족원의 감정적·물리적 일치감을 강조하는 양극단적

인 수준의 행동을 기대하고, 가족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극단수준의 가족도 기능적인 가족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Olson, Russell과 Sprenkle, 1983 : 73).

따라서 자기자신보다 가족의 이익, 화목과 결속을 중히 여기며, 가장의 권위나 가정의 규칙에 엄격한 특성을 가진 정상적인 한국의 가족(이규태, 1977, 280~292)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대한 직선적 가설의 적용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김진희(1989), 박초아(1989), 김명자(1992), 박경숙(1993) 등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가족에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족기능과 직선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Olson(1986)은 가족기능의 차원과 역할공유란 가족행동사이 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가족기능과 역할공유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직선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kenfield는 가족의 적응력과 융통성은 가족이 사회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처 극복하게 하는 가족의 한 속성이며, 가족에 대한 책임이 응집력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부인이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높게 인지하면 할수록 부부간의 가사노동 공유의 수준이 더 높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응집력이 강한 가정에서 부부는 결혼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며, 가정·자녀 등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 에너지 등과 같은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적응적인 부부일수록 전통적인 역할경계를 무시한 가족의 요구에 더욱 더 반응하여, 남편은 전통적인 여성의 일에 더 자유롭게 참여하며, 부인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책임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적응력이 크면 클수록 부부가 개인, 가족의 요구, 환경에 따라 가정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Wilkenfield, 1988 : 116~119). 따라서 주부가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가족응집력이나 적응력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수행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사노동수행방안

가사노동은 개별적인 가정생활의 장에서 매일 반복되어 행해지는 가사, 육아 및 가정관리를 위한 노동이다.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동시에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이기영, 1987 : 1). 오늘날의 가사노동은 i) 과거에 비해 시간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영역별 시간사용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신체적인 가사노동의 부담은 감소했으나, 정신적인 측면의 가사노동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ii)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체제의 역할분업관념이 여전히 남녀의 역할을 결정짓는 기제로 작용하여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과 수행이 지속적으로 주부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조성은, 1990 : 16). 따라서 직업과 가정영역에서의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취업주부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된다.

취업주부는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한 시간제약 및 역할갈등을 느끼며 이런 시간제약, 역할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한 시간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가사노동관점에서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사회화(가사노동상품대체, 가사대체용역고용, 가정기가기용), 가사노동수행표준 등으로 분류하였다.

1)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분담이란 가사노동을 가족원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족원간의 분담을 통해 자신이 수행해야할 가사노동의 양을 줄임으로써 주부는 시간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이승미, 1989 : 15). 취업부인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자신의 일에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인지할 때 스트레스가 줄고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했다. Smith와 Reid(1986)는 남편의 지지를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남편의 참여정도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남편이 유의한 도움을 제공할 때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일을 지지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shall, 1990 : 9 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족간의

가사분담은 취업주부의 시간부족으로 인한 시간갈등을 해소시켜줄 뿐만아니라 가족원들이 가사분담을 통하여 취업주부의 역할과중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이성숙, 1994 : 70). 시간관리전략중에서 가사분담전략이 전체 가정생활 및 부부관계, 가사노동 영역의 만족에 크게 영향 미치므로(이정숙, 1994 : 52) 취업주부 및 가족은 가사분담전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가사노동사회화

① 상품대체 : 상품대체란 가사노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제공하는 편의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산출 결과와 직접 대체될 수 있는 편의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은 가정내 가사노동의 양과 시간을 감경시켜주므로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이승미, 1989 : 21).

취업주부가 직업 가정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cols와 Fox, 1983 : 이승미, 1989 : 조성은, 1991 : 임혜경, 1993). 그러나 가사노동사회화 정도와 가정관리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경, 1993 : 79) 이는 실제로 제공되는 대체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만족할만하지 못하다거나, 가사노동은 주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이라 생각된다.

② 가사대체용역의 고용 :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이 유급의 가사보조자에 의해 대행되어지는 것으로 주부의 역할 일부를 가사보조자가 대행함으로써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을 줄여 줄 수 있다. 취업주부가 유급의 가사대체 용역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ver와 Weinberg, 1976 : 344), 가사대체용역 고용정도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취업여부보다는 직업지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③ 가정기가기용 :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으로, 기기를 사용하여 주부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취업주부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가정기기의 이용은 가사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생활기기를 사용하여 제한된 시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시간제약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반면에 기기 유지, 관리에 시간이 소요되며, 과제수행의 빈번함으로 기대되는 표준의 수준이 향상된 점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가사노동부담을 더해주는 측면도 있다(이승미, 1989 : 20). 선행연구결과 취업여부와 기기소유정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ver와 Weinberg, 1980 : 344).

3) 가사노동수행 표준의 조정

가사노동수행표준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결과의 양과 질을 규정하는 관리과정상에 설정된 표준을 의미한다. 주부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높이 평가되고 관례화된 표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과 질은 차이가 날 것이며, 그에 따라 가사노동시간도 달라질 것이다(조성은, 1991 : 11). 시간자원의 부족을 겪는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을 통해 기대되는 양과 질을 낮추는 수행표준의 조정을 통해 시간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표준은 설정된 표준의 수준까지 수행해 냈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는 자아보상의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죄책감이나 걱정스러움을 유발시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수행표준의 조정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조성은, 1991 : 82) 주부로서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죄책감, 제한된 자율성 등으로 인해 표준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이승미, 1989 : 81).

3. 취업주부의 응집력,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가족적응력 및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가족응집력, 적응력에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라기 보다는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이 가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되었다.

구되었다.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기타 다른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Friedman, Utada와 Morrissey, 1987 : 44).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중년기에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lson, 1986). 또한 자녀가 적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가족응집력,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1988 : 43).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의 응집력이 낮았으며(Olson, 1986 ; Farrell와 Barnes, 1993 : 122 재인용), '극단수준의 가족'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에 비해 비교적 부인의 연령, 남편의 교육정도, 월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순덕, 1987).

한편 Wilkenfield는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부부간의 역할공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주부가 가족응집력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부부간의 가사노동공유수준이 높다고 느끼며, 적응력이 크면 클수록 부부가 개인 가족의 욕구, 환경에 따라 가정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Hollan과 Gilbert(1979)는 가족응집력이 역할갈등과 관련되므로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부인의 역할갈등이 낮다고 했으며(Mertensmeyer와 Coleman, 1987 : 428에서 재인용), 중년기 주부의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가족응집력이며(김명자, 1992), 박경숙(1993)도 가족응집력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2)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령 :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분담전략을 더 사용하며(조성은, 1991 : 53 ; 이정숙, 1994 : 54), 외식과 편의품 이용정도가 높아지고(정연주, 1987 : 이기영, 1987). 가사노동사회화 정도가 높아졌다(문숙재·홍성희, 1988 ; 조성은, 1991 : 67) 주부의 연령은 가사노동시 기기이용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행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1 : 57, 60~61). 총시간관리전략

은 주부의 연령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1 : 65 ; 이정숙, 1994 : 21).

② 자녀수 : 이기영(1987)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사용 내구재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사노동 상품대체 수준이 높다고 했다(조성은, 1991 : 21 재인용). 총시간관리전략은 자녀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인 경우가 2명 이상인 집단보다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기기이용, 가사노동사회화는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1 : 52,54).

③ 막내자녀 연령 : 자녀는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인적자원이 될 수도 있고, 가사노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막내자녀의 연령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빈, 1981 ; 한경미, 1987 ; 조성은, 1991 : 22 재인용). 또한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 즉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가사노동수행표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수행표준의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조성은, 1991 : 61) 나타났다.

④ 가족형태 :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분담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조성은, 1991 : 55), 전문적 주부의 경우 특히 자녀양육부분에서 시모나, 친정보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1989 : 53). 또한 핵가족의 가사노동수행표준의 조정이 확대가족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1 : 69).

⑤ 가사보조자유부 : 가사보조자가 없는 경우 상품대체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숙, 1994 : 55), 그외의 다른 수행방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가사노동시간 : 연령이 낮을수록(조성은, 1991 : 71),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한경미, 1987)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전문적 주부가 사무기술직, 노동판매직의 여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적었으며,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조성은, 1991 : 73) 나

타났다.

이외에 성역할태도, 직업지위, 가계소득, 주부의 교육 수준, 시간제약지각 등의 변인이 가사노동수행방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6개 변인과 가족자원변인으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이상의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취업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력, 적응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응집력, 적응력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1) 가족응집력, 적응력

본 연구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측도는 Olson, Portner와 Bell(1982)등이 제작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 FACES II)를 기초로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집력차원은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 등과 관련된 16분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응력차원은 가족내의 권력,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등과 관련된 14분항으로 구성되었다.

투척도의 Cronbach' α 는 각각 .80, .85 이며,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사노동수행방안

본 연구의 가사노동수행방안척도는 선행연구(정연주, 1986; 한경미, 1987; 이기영, 1987; 이승미, 1989; 두경자, 1990; 이은주, 1992 등)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척도는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사회화(상품대체, 가사대체용역 고용, 가정기기이용) 및 가사노동수행표준등의 3개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사노동분담척도는 동거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원의 분담정도와 남편의 분담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가족원의 분담은 활동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아한다-4점, 전혀 돕지 않는다-0점을 부여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분포는 0점에서 16점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담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편의 분담정도는 15개 가사활동영역에서의 분담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점수분포는 0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분담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사회화중 상품대체 척도는 식생활에 있어서의 편의품, 서비스의 이용정도를 측정한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분포는 10점에서 3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품대체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사대체용역고용 척도는 가정부, 파출부의 가사노동분담정도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기기이용 척도는 전허사용하지 않는다-0점, 항상 사용한다-3점의 4점리커트 척도로 7개 가정기기의 이용정도를 측정하였다. 점수분포는 0점에서 21점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기기의 이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수행표준 척도는 15개 가사활동에 대해 항상 철저히야 한다-5점, 항상 대충해도 된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분포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표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근무처가 서

울시에 있으며 1명이상의 자녀가 있고, 전분직(교육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 취업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4년 8월 1일부터 8월 17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 질문지를 수정, 보완 한 후 1994년 10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실기재한 경우와 무자녀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319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신뢰도, 빈도분포, 백분율,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기위해 단순빈도와 백분률로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이 30, 40대 였으며(83.3%), 69.4%가 핵가족이며, 93%가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고용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주부가 71.5%, 47.1%가 하루 3~4시간 정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의 막내자녀가 있는 가정이 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일반적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1)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일반적인 경향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2>과 같다.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적응력의 평균은 각각 62.25(3.89), 52.68(3.76)로 이는 FACEIII를 사용하여 가족응집력, 적응력을 측정한 다른 연구(김명자, 1992- 3.18, 3.00; 박경숙, 1993- 3.70, 3.29)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주부의 연령	20대	24	7.5	사 녀 수	1명	97	30.7
	30대	174	54.7		2명	197	62.3
	40대	91	28.6		3명	22	7.0
	50대	29	9.1		계	316	100
	계	318	100		막 내 사 녀 연 령	6세 이하	155
가 족 형 태	핵가족	215	69.4	7~12세		74	23.8
	확대가족	95	30.6	13~18세		45	14.5
	계	310	100	19세 이상		37	11.9
가 사 노 동 시 간	2시간 이하	81	26	계		311	100
	3~4	147	47.1	가 사 보 호 자 유 부	부	221	71.5
	5~9	84	26.9		유	88	28.5
	계	312	100		계	309	100

〈표 2〉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적응력의 일반적 경향

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응집력	62.25	7.02	16~80
적응력	52.68	6.03	14~70

의 조사대상의 학력이 높기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적응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족원들의 역할, 권력 등에 대한 의식이 다른 가족과는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취업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배경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F test와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부의 가족응집력은 연령, 자녀수, 막내사녀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2명인 가족이 3명인 가족보다,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가족응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사녀연령이 13~18세일 때 가족응집력이 타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을 때 가족응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진희, 1989)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부의 가족적응력은 막내사녀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사녀연령이 13~18세인 집단 가족적응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의 일반적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1) 가사노동수행방안의 일반적 경향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으로 한 각 가사노동수행방안의 점수는 가족원의 가사분담 1.70, 남편의 가사분담 1.91, 가사노동상품대체 2.83, 가사대체용역고용 1.01, 가정기기가용 2.31, 가사노동수행 표준은 3.90점 이었다. 본 조사대상은 가족원의 분담보다는 남편의 분담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대상자의 막내사녀의 연령이 비교적 어리며 핵가족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줄 가정내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사노동상품대체나 가정기기가용은 척도상의 중간값 보

〈표 3〉 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력, 적응력

(N=319)

		응 집 력			적 응 력		
		M	F	D	M	F	D
연령	20	64.37	3.38**	A	52.83	0.97	A
	30	62.99		A	52.09		A
	40	60.65		B	51.84		A
	50	60.86		B	53.75		A
자녀수	1명	62.38	3.24*	A	52.44	0.78	A
	2명	62.59		A	52.95		A
	3명	58.63		B	51.40		A
막내자녀 연령	6세 이하	63.05	3.89**	A	52.62	2.78*	B
	7~12	62.83		A	53.48		A
	13~18	59.15		B	50.64		B
	19세 이상	61.81		A	54.00		A
가 족 형 태	핵 가 족	63.07	10.79***	A	53.46	10.41***	A
	확대가족	60.31		B	50.67		B
가 사 보호자	무	61.94	1.85	A	52.57	0.68	A
	유	63.15		A	53.20		A
가 사 노동시간	2시간 이하	62.51	0.06	A	52.76	0.02	A
	3~4	62.18		A	52.67		A
	5시간 이상	62.21		A	52.84		A

* p<.05 ** p<.01 *** p<.001

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대체용역고용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중 71.5%가 유급의 가사보조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가사노동수행표준은 5점 만점에 3.41점으로 집안일을 어느정도 철저하게 해야 된

〈표 4〉 가사노동 수행 방안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균(5점만점)	표준편차	Range
가족원의 가사분담	5.66(1.70)	2.37	0~16
남편의 가사분담	22.98(1.91)	11.29	0~60
가사노동상품대체	22.12(2.83)	4.58	10~39
가정기기이용	9.92(2.31)	3.20	0~21
가사노동수행표준	51.15(3.90)	7.10	15~75
가사대체용역고용	0.81(1.10)	1.30	1~4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선택한 전략중 역할요인은 변하지 않은 채로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일하므로써 모든 것을 다하려는 증가된 역할행동이 가장 높게 선택되는 전략이라고 한 구혜령(1991:118)의 연구결과와 직업지위가 높은 취업주부의 경우 낮은 수행표준이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보다 표준조정전략을 덜 사용한다는 Bird, Bird와 Scruggs(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수행방안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에 배경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F-test와,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가족원에 의한 분담은 가족형태와 가사보조자 유

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핵가족 보다 확대가족이 가사분담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시모나 친정모의 도움 때문으로 생각되며, 가사보조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가사보조자가 담당하게 되므로 가족원의 분담은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원중 남편의 분담정도는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일 때, 핵가족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정도가 높았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 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므로 남편역할분담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이 근대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가사분담에 대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막내자녀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 남편의 분담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어린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했으나 남편과 부인의 비율에

는 변화가 없었다는 Ross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어린자녀는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가사노동 요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가사노동사회화중 상품대체는 막내자녀연령, 가사보조자 유무에 따라, 가사대체용역고용은 가족형태,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가정기카이용정도는 가족형태, 가사보조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이 19세 이상, 가사보조자가 없는 경우 상품대체 정도가 높았으며, 핵가족의 경우 가사대체용역의 고용정도가 높았다.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가사대체용역고용은 가사보조자가 있을 경우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수행표준은 6개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주부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방안

		가족원의 가사분담			남편의 가사분담			가사노동 상품대체			가사대체 용역고용			가정기카이용			가사노동 수행표준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연령	20대	5.51		A	29.50		A	22.79		A	0.95		A	9.79		A	48.62		B
	30대	5.87	1.16	A	24.28	***	B C	22.52	2.30	A	0.79	0.32	A	9.89	0.49	A	50.97	1.76	A B
	40대	5.38		A	20.05	7.39	B C	21.64		A B	0.76		A	9.81		A	51.56		A B
	50대	5.28		A	18.46		C	20.39		B	1.00		A	10.63		A	52.96		A
자녀수	1명	5.76		A	24.76		A	22.58		A	0.69		A	10.05		A	50.76		A
	2명	5.54	1.27	A	22.49	2.76	A B	22.03	1.18	A	0.92	2.10	A	9.85	0.13	A	51.51	0.56	A
	3명이상	6.38		A	18.95		B	21.00		A	0.42		A	9.81		A	50.28		A
막내 자녀 연령	6세이하	5.91		A	25.09		A	22.72		A	0.88		A	9.86		A	50.46		B
	7-12세	5.48	1.00	A	21.18	4.89**	A B	22.40	4.69**	A	0.82	0.40	A	9.60	0.41	A	51.51	1.85	A B
	13-18세	5.35		A	20.37		B	21.66		A	0.64		A	10.13		A	51.57		A B
	19세이상	5.47		A	19.08		B	19.66		B	0.88		A	10.22		A	53.41		A
가족 형태	핵가족	5.33	***	B	24.00	7.20**	A	22.44	2.64	A	0.97	8.24**	A	10.25	5.74**	A	50.96	0.56	A
	확대가족	6.37	13.00	A	20.28		B	21.53		A	0.51		B	9.30		B	51.62		A
가사 보조자	무	5.81		A	23.19	0.53	A	21.63	5.81***	B	0.17		B	9.55		B	51.17		A
	유	5.13	5.20*	B	22.14		A	23.18		A	2.47	517.51	A	10.65	7.53**	A	51.19	0.00	A
가사 노동 시간	2시간이하	5.81		A	23.27		A	22.92		A	1.47		A	10.03		A	50.13		B
	3-4시간	5.63	0.16	A	23.38	0.18	A	21.63	2.10	A	0.61	11.49***	B	9.64	1.19	A	50.68	2.75	A B
	5시간이상	5.71		A	22.47		A	22.03		A	0.63		B	10.31		A	52.52		A

* p< .05 ** p< .01 *** p< .001

의 연령이 적을수록 수행표준이 낮았으며, 수행표준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에 대한 배경변인 및 가족자원변인의 독립적 영향력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을 제외한 관련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족원의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형태와 가족적응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이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의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적응력이 가족원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은 가족원이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긴장에 반응하여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가질수록 가족원의 가사분담이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남편의 분담정도는 가족응집력에 영향을 받으며, 단일변인의 설명력이 2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가 가족원끼리의 정서적 유대가 높다고 인지할 때 남편의 분담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편이 유의한 도움을 제공할 때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일을 지지한다고 느낀다는 Smith와 Reid(1986; Marshall, 1990: 9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가족원의 분담에는 가족적응력이, 남편의 분담에는 가족응집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가사노동수행표준은 주부의 연령, 가족형태, 가사노동시간, 가족응집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수행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표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았으며, 가족응집력과 가사노동수행과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 응집력이 높을때 가사노동수행표준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전문직에 종사하고 직장소재지가 서울시이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 31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Duncan의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표 6>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수행 방안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가족원의 가사분담		남편의 가사분담		가사노동 상품대체		가사노동 대체용역		가정기기 이용		가사노동 수행표준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29	-.09	-.25	-.39	.17	.11	.17	-.03	.18	.08	.38	.36*
자녀수	.10	.44	.02	.49	-.07	-.56	.03	.08	-.11	-.62	-.12	-.147
막내자녀연령	.15	.05	.04	.07	-.32	-.21	.12	.02	-.11	-.05	-.16	-.16
가족형태	.21	1.14***	-.07	-1.8	-.07	-.76	-.02	-.08	-.09	-.67	.12	1.8*
가사보조자유부	-.10	-.29	-.04	-.63	.12	.64	.72	1.11	.13	.51*	.02	.17
가사노동시간	-.03	-.06	-.03	-.22	-.04	-.13	-.06	-.05	.06	.14	.16	.71**
응집력	-.09	-.03	.33	.54***	-.02	-.01	.16	.03*	-.00	.00	.33	.33***
적응력	.25	.10*	.02	.04	-.03	-.02	-.14	.03*	.02	.01	-.06	-.08
상	5.16		1.94		23.21		-.03		6.68		21.17	
R ²	0.09		.21		.06		.57		.04		.12	
F	3.84***		9.38***		2.38**		46.50**		1.63		4.79***	

* p < .05 ** p < .01 *** p < .001

수행방안에 대한 배경변인 및 가족응집력, 적응력의 영향력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대상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집력은 주부의 연령,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적응력은 막내자녀 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 중 가족원의 분담은 가족형태, 가사보조자유무에 따라, 남편의 분담은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 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상품대체는 막내자녀 연령과 가사보조자유무에 따라, 가사대체용역고용은 가족형태와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가정기기이용은 가족형태와 가사보조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수행표준은 6개 범인의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족원분담에는 적응력($\beta = .10$), 가족형태($\beta = 1.14$), 남편의 분담에는 가족응집력($\beta = .54$)으로 총 설명력은 각각 9%, 21%였다. 가사노동수행표준에는 주부의 연령($\beta = .36$), 가족응집력($\beta = .33$), 가사노동시간($\beta = .7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12%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및 가족 상황에 적합한 여러가지 가사노동수행방안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이 주부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부인들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자신의 일에 대한 남편의 지지로 인식하며, 남편들이 자신의 일에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인지할 때 스트레스가 줄고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가사노동수행방안중 가족응집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남편의 가사분담이 잘 이루어질 때 주부의 심리적 복지감 및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내 역할분담에 대한 주부와 남편의 태도가 보다 역할 공유형으로 될 때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심리적제약의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노동수행표준은 가정이나 사회가 규범적으로 인정한 가사노동에 대해 주부가 이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표준은 주부자신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며, 전문직 취업주부는 낮은 가사노동수행표준을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가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곧 목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원의 가사분담이 단순히 주부의 가사노동부담만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부의 취업에 대한 지지와 이해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표준에 가족응집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는 가족원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가사노동수행표준은 표준의 실행이라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주부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가족원들이나 주부의 가사노동만족도나 가정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가족적응력이 가족원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부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전체가족원들이 유동적인 역할인식을 가질 때 가정내 융통성 있는 가족원의 가사노동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주부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한 긴장이나 부담은 주부의 가정환경, 직업환경,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은 취업주부의 신체적, 시간적 제약이라는 문제외에 주부의 심리적 부담감 및 불공평하다는 느낌에서 기인된 불만족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주부자신 뿐아니라 전체가족원 및 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과중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부의 직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주부 스스로의 인식 및 가족, 사회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인식을 근거로한 가족원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에 대해 갖는 부담은 비록 시간제약으로 가시화 된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은 주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측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 해도 가사노동의 심리적인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점을 내포한 질문지법 이외의 다양한 측정방법의 개발과 그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안 연구시 심리적 변인, 가족상호작용변인등 보다 다양한 주부 및 가족원의 심리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직장이 서울이며, 전문직(정부 관리직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약사, 간호사)에 취업하고 있는 주부중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주부들로 국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취업여성 전반으로 일반화 하는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좀 더 확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2)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대논문집 31, 31-56.
- 3)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 두경자(1990),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5) 문숙재·홍성희(1988),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13.
- 6)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7) 박초아(1988),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8) 배희분(1991), "취업주부의 부양자 역할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9)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 의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0)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1)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2)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14) 임혜경(1993),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15)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6) 조성은(1990),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7) Bird, G.A., Bird, G.W. & Scruggs, M.(1983), "Role-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husband and wives in two 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 18)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ed, Boston, Allin and Bacon, Inc.
- 19) Farrell, M.P. & Barnes, G.D.(1993). "Family system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 20) Friedman, A.S., Utada, A. & Morrissey, M.R.(1987).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 Family Process 26.
- 21) Lavee, Y.(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22) Marshall, C.M.(1990), "Housework in dual-earner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23) Merstemsmeier C. & Coleman, M.(1987), "Correlates of interrole conflict in young rural and urban parents", Family Relations 36.
- 24) Nickols, S.Y. & Fox, K.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 25) Olson, D., Russell, D., & Sprenkle, D.(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es 22.
- 26) Ross, C.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3).
- 27) Strover M.H.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 28) Wilkenfield, L.D.(1988), "An investigation of dual career wives' perceptions of task sharing from a family systems approach", New York Univ. Ph. D.